

## ‘그리다’

이진숙(미술사)

예술은 삶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Trotzdem)’의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형식을 창조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불협화음의 존재를 가장 깊이 확인 하는 행위이다.

-루카치, 소설 형식의 이론, 반성완 옮김, 심설당, 1985, 92 쪽-

죽음을 선언 받은 회화가 병상에서 다시 일어서더니 더 풍요로워지는 신비스러운 장면으로 20 세기는 막을 내렸다. 아방가르드의 회화의 종언 선언에서 시작하여 포스트 아방가르드의 회화의 복원에 이르는 지난 세기의 뜨거운 논쟁은 결국 새로운 시대의 회화의 존재성 및 그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모색의 다름 아니었다. 회화의 이 지독한 생명력의 근거는 우리의 그리기에 대한 욕망이 어쩌면 잠시 잊혀 졌다가도 때 되면 찾아드는 목마름이나 배고픔 같이 절실한 뿌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기표현과 세계 해석의 한 형식으로서 그리기에 대한 본원적인 갈망 말이다.

김혜련은 캔버스에 유채로 허윤희는 종이에 목탄으로 ‘그린다’. 이 작가들의 작업은 이 원초적인 ‘그리기’에 대한 본원적인 욕망에 충실히 조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의 미술이 ‘풍부한 비평과 부족한 작품’이라는 한탄이 들릴 만큼 이른바 ‘컨셉트’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작가들의 작업은 이 ‘그리다’라는 동사가 가진 본래의 소박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런 소박함은 이슈에 목말라하는 저널리즘적인 태도에는 실망을 안겨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보다는 다양한 ‘그리기’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슈화 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비평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도로프의 말 대로 “회화는 본질적으로 그려진 것을 예찬하는 것”이며 어떤 사물이 그림으로 그려졌다는 것은 그 만큼의 예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예찬’이라는 것은 유의미한 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린다’라는 행위는 삶에서 무표정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호명하는 일이며 이 호명을 통해서 호명된 존재와 세계는 그들의 상호적 관계, 그리고 세계 자체를 드러낸다.

이 두 작가들의 작업은 그 문제의식에 있어서나 작품을 구축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나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단지 이들에게서 굳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두 작가 모두 독일에서 오랜 시간을 공부하며 작가로서의 역량을 쌓아갔다는 점이다. 이 작가들이 수업시기를 거친 1990 년대의 독일 미술이란 바로 1980 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포스트아방가르드 회화의 개화기로 독일 회화가 새로운 융성기를 맞으며 세계적인 대가들을 배출해낸 시기이다.

포스트아방가르드의 회화는 회화의 존재를 부정하고 위협했던 바로 그 요소(새로운 미디어의 발달, 재현과 추상의 동시적 위기)들을 흡수하여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 나갔다. 회화의 종언을 선언했던 작가들이 일종의 방법론적인 통일성을 요구하는 강령을 가지고 자기를 선언하며 '운동'이라는 형태로 자신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포스트아방가르드 회화는 다양한 형태의 그리기 자체를 즐기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새로운 매제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의 수용과 유화나 드로잉 같은 전통적인 매제의 사용도 이제는 어떤 강박증으로 느끼지 않아도 좋았다. 이 두 작가가 보여주는 '그리기' 자체에 지극히 충실한 태도도 이런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린다'라는 행위의 역사성, 그리는 방식의 변화는 '지금, 여기'의 우리의 회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김혜련과 허윤희의 그림은 매제의 다름 만큼이나 다른 그리기 방식을 보여준다. 전자가 회화적 요소와 그 가능성이라는 보다 객관적인 요소에 대한 탐구가 도드라진다면 후자는 예술적 주체의 진솔 자체가 중요한 그리기이다.

### **허윤희 - 목탄으로 그리다**

허윤희의 작품은 그리기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타인의 일기장을 보는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이다. 인터넷의 네티즌으로 때로 철저히 익명화 되어 익명의 공간을 휘젓고 다니고 적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이런 직접적인 고해 성사는 익숙하지 않은 탓이다. 이 고해성사는 그 절실함과 진정성 때문에 우선은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여인의 내면의 공명관에서 반복해서 울리는 것은 모든 '사라지는 것들', '지속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애가(哀歌)이다.

시간에 결박되어 소멸하는 모든 존재의 취약함에 대한 애달픈 연민은 작가의 모든 것에 뿌리내린 생생한 현실로 체험된다. 마치 프리다 칼로가 앙드레 브뤼통에게 자신의 그림이 초현실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처절한 현실 자체라고 했던 것처럼 허윤희의 작품은 자신의 존재에 즉해 있는 현실이다. 그 절실성과 진정성으로 작가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 화면의 4/5 를 차지하는 땅 위에 누워있는 인물은 하늘과 물 사이에 겨우 끼어 있다(Thirst, 1997 년 작). 허락된 공간의 협소함은 소금물을 들이키는 갈증으로 느껴진다. 망망한 대해에 떠 있는 모습,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 무언가를 소중하게 끌어안는 모습,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는 듯한 모습이 반복하여 그려진다. 이러한 모습은 철저하게 작가의 내면의 기록이다. 작가는 세계를 향한 갈망을 절실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작가는 자기 밖에 있는 그런 세계를 함부로 바꾸려하지도 객관화시키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다.

독일 유학 시절 작가는 독일 브레멘시의 오스트홀트-테네바 구역에 있는 저소득층 고층아파트 계단의 각층에 사람들이 해 놓은 낙서 위에 자신의 그림을 살짝 섞어 놓는 작업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작가가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매우 완성도 있게 미학화 한 것이다. 작가는 그 아파트의 낙서를 지우거나 덧칠하지 않고 그 위에 작고 부드러운 흔적을 남겼을 뿐이다. 이는 작가가 함부로 세계에 대해서 정언 명제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는 단지 그런 취약한

세계의 모습을 일견 운명처럼 수긍하는 듯하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존재의 취약성을 예술로 보충하려는 혁명의 노래가 아니라 세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길고 긴 애가가 된다. 취약한 현실을 보듬는 가녀린 숨결 같은 노래 말이다.

작가의 애가는 아도르노적인 의미의 '예술은 눈물 없는 울음'에 말 그대로 조용하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예술은 "사회의 밖에 존재함으로써 사회와 관계를 맺고, 소통을 거부함으로써 사회와 소통을 하고, 비화해적인 것을 증언함으로써 사회와 화해를 제시하는 역설, 이 역설을 통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화해'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 무기력한 구원 행위가 바로 예술의 존재의 의의다. 작가가 원하는 것은 이런 세계에 대한 원망이 아니다 세계에 대한 지슬이다. 이러한 간절한 소통에 대한 욕구는 입에서 꽃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이 말은 응답이 없는 독백과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작가는 세계를 객관화시키기보다 자신의 상태 서술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태 서술에 집중하는 것으로 일기만 한 것이 있을까? 낡은 책 위에 그린 그림일기는 처음에는 해독이 용이치 않은 독일어 책 위에 그려졌다. 해독불가능성을 해독 가능한 언어, 그림으로 치유하려는 행위였으리라.

작가가 매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런 세계의 취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매제가 된다. 원래 드로잉은 작품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 정도로 이해되어 왔다. 독자적인 장르로서 인정을 받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허윤희의 작품 세계 속에서는 드로잉은 그 자체로서 완성된 존재로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빠른 묘사가 가능한 목탄은 모든 덧없이 소멸하는 것에 대한 순간적인 기록에 적합하다. 역사로 기록되지 못하는 사소한 존재들의 명멸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형태로 보존된다. 덧없기에 명료한 모습으로 기록되지 못하며 불확실한 기억의 편린으로만 존재하는데, 목탄은 기억의 반추작용처럼 작가가 어떤 모습을 반복해서 그리고 또 지우면서 화면을 구성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애써 그리고 나서 이내 지워버리는 대형 목탄 벽화 작업도 이런 세계의 취약성에 조용하는 행위이다.

허윤희의 그림은 묘사와 그 내적인 파토스에 있어서 바젤리츠를 연상시킨다. 세계에 대한 논평이나 텍스트가 아니라 스스로 불안정한 세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말이다. 세계가 불안전하고 덧없는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불안정한 세계를 예술적으로 보충하여 아픔을 가리는 것보다 아픔을 아픔 자체로 불안전함을 불안전함 자체로 표현하는 것도 '눈물 없는 울음'을 우는 예술가의 몫인 게다.